



기초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여수·순천·광양시장

■여수시장

Table with 5 columns for candidates: 김강식 (50) 우리당, 김용우 (52) 한나라당, 오현섭 (55) 민주당, 심정우 (46) 무소속. Includes fields for current position, education, major achievements, and policies.

■순천시장

Table with 5 columns for candidates: 이은 (53) 우리당, 노관규 (45) 민주당, 이순근 (38) 민주당, 이기우 (70) 한미준. Includes fields for current position, education, major achievements, and policies.

■광양시장

Table with 5 columns for candidates: 서종식 (47) 우리당, 이성웅 (63) 민주당, 김정태 (38) 민주당, 박필순 (45) 무소속. Includes fields for current position, education, major achievements, and policies.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여수시장

인구와 제조업체 부가가치액 면에서 전남 제1의 도시지만 지난 3월 말로 주민수 30만명이 붕괴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수산업 침체와 교육여건 미비, 출산을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임을 강조한다. 오 후보는 "여수산단 및 광양항과 연계한 물류단지 조성 및 읍면지역 활성화, 인재육성, 행정체제를 통해 여수가 동부권의 행정·산업·교육의 중심축으로, 국제해양도시로 성장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그 첫걸음이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인 만큼 일본 나고야대학에서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우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매니페스토 시범지역 선정  
"청렴한시장 되겠다" 각오

■순천시장

민선 3기동안 세 명의 시장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바람에 이번 만큼은 도덕적이고 청렴한 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시장이 시민들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시장을 열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후보들도 '청렴성'을 부각시키는데 힘을 쏟을

을 통해 순천을 광양만권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검사·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노관규 후보는 "원칙과 기준을 바로세워 시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적관리 시스템을 복원하고 지역간 격차, 계층간 갈등 등의 문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새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세기형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항 활성화 급선무

■광양시장

국내 3대 경제특구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 활성화가 최대 현안이다. 광양만에너부두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오락가락 행정과 다른 지역의 끊임없는 견제로 두-포토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확고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서 및 동(農)간 균형발전과 인근 여수·순

전남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이성웅 후보는 "시의 명운이 걸린 대형 사업들이 2010년에 초점이 맞춰져 향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자유구역청사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사 유치, 교육환경 개선 등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모태 복지에서 영혼복까지 아우르는 생산적 복지와 교육·문화가 꽃피는 품격 있는 도시를 기본개념으로 공약을 다지고 있다.

'경제시장' '준비된 행정전문가' 자임  
SOC 조기 확충·해양관광도시 건설

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4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민주당 오현섭 후보와 열린우리당 김강식 후보가 '2강'으로 꼽히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강식 후보는 섬유유통센터인 '삼우텍스플라자' 운영 경험을 발판으로 '경제시장론'을 펴고 있다. 지난 15·16대 총선에 출마해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김 후보는 "기업에서 익힌 실무경험과 국제적 경영 감각, 국내외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여수 경제 발전과 고용률의 경제 행정을 이루겠다"며 "세계박람회 유치와 SOC 조기 확충, 교육 문제 및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수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현섭 후보는 전남대 행정·정무부지사 이력을 내세워 '준비된 행정전문가'

로 2003 여수세계박람회조직추진위원회 등을 맡아 지역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는 "동서갈등 해소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한나라당 시장이 나와야 한다"며 지역문화세계화를 위한 세계박람회·범선대회, 국동 다기능화 조기 건설, 구 여수역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으로는 국회의원보좌관을 지낸 심정우 후보도 경인교수가 재도전에 나섰다. 그는 "세계박람회 재도전을 최초로 건의해 국가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게 됐다"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와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져분신청을 낸 김종석 현 시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투명한 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  
광양만권 중심도시 새모델 제시

는 한편 중앙선관위 선정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시범지역인 만큼 비장의 정책과 공약 다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4명의 후보 가운데 민주당 노관규 후보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이은 후보가 맹추격하는 양상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열린우리당 이은 후보는 세계 해사대학원(스웨덴)을 졸업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여수해양경찰청을 역임한 해양수산행정전문가. 그는 "27년간 공직생활에서 검증받은 청렴성으로 팔마의 정신을 회복시킨 시장으로 기록되고 싶다"며 "자타가 공감하는 투명한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대지구 조기 개발, 원(元)-신도심 및 동·농간 균형발전, 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젊은 도시로 바뀌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노관규 후보는 "지역경제 침체 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라며 지역비정규직타운화와 지역경제고용위원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형식이 흐르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창당한 한미준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우 후보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공업과 상업, 교육의 요충지인 순천을 전국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문화도시 건설을 모토로 출사표를 던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서·도·농간 균형발전 추진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 과제

전에 비해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도 과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4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민주당 이성웅 현 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야 여당 후보로 확정된 서종식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종식 후보는 "침체된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과 국내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공격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 후보의 감점을 살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인 광양·여수·순천·하동을 하나로 묶어 인구 100만명의 광역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아울러 강력한 추진력으로 광양항을 세계 15위권의 항만으로 육성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 김정은 후보는 전남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 김 후보는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특정정당의 싸움을 끝내고 지방정치를 관할해야 한다"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시녹지총량 등 서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주민참여 정치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박필순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광양에서 돈벌어 살기는 외지에서 산다'는 점이며 이는 시장의 지도력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광양읍권 활성화, 항만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RAVIA TV.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V and text: 'BRAVIA', '5월 11일(목)', '5월 15일(일)', '062-522-8500'.

Advertisement for '아카데미명생교육원' (Academy Myeongseong Education Center). Features text: '특성·능력우선의 시매 전문자격증어 곧 경쟁력!!', '5월 11일(목)', '5월 15일(일)', '062-522-8500'.